

이정모의 '자연이 전하는 말'



자연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을 이야기할 때 종종 전제를 하나 깔고 출발한다. 자연은 번식을 위해 존재하며 생명은 오직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연은 하나의 정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평균편에서 우리는 인상적인 장면을 본다. 남극과 동물원의 펭귄 무리에서는 수컷 두 마리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강한 동물인 돌고래는 특정 개체끼리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의료칼럼



신병철 조선대병원 신경내과 교수

아번 겨울은 매서운 칼바람과 2주 가량 지속된 영하권 기온 등으로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난히 추웠다.

공팔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높아진 혈압은 공팔 내의 미세한 혈관들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기고



이은수 순천효천고 3학년

평범한 학교생활 중 찾아온 RCY 라오스 해외봉사 소식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타국 아이들에게 도움을 손길로 전한다는 의미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도전을 선택했다.

특히 출국 전 마지막 2박 3일, 조별 활동과 댄스 연습으로 밤늦게까지 밤 흥했던 시간은 시작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한 순간적 행동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신뢰와 동맹의 형태로 가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하나인 보노보 사회에서는 동성 간 접촉이 보다 분명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기린은 더 노골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야생 관찰 연구에서는 수컷 기린 사이의 성적 행동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어떤 보고에서는 이성 간 행동보다 더 자주 기록되기도 했다.

동성 행동에는 진화적으로 '말이 되는' 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번식을 통해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이 생명의 기본 원리라면 불리한 특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어떤 개체가 직접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리 안에서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거나 친족을 돕는 역할을 한다면 그 유전자는 간접적으로 다음 세대에 남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종에서 동성 행동이 관찰된다고 해서 평

생 번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이성 간 번식도 이루어지며 성적 행동과 번식이 반드시 하나로 묶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중은 종종 동성에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거나 혹은 호르몬으로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유전학의 결론은 훨씬 신중하다.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태도는 판단이 아니라 겸손이다. 자연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게 된다.

자연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다.

<평균편작과학관장>

'겨울철 소리 없는 위협' 만성 콩팥병

을 담당하는 사구체를 손상시켜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 배출이 감소하면 체내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워 콩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만성콩팥병을 포함한 콩팥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때까지 뚜렷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콩팥 기능이 70~80% 이상 손상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만성콩팥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당뇨병과 고혈압이다.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의 70% 이상이

이 두 가지 질환에서 비롯된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끈적해진 혈액이 콩팥의 여과 장치를 망가뜨리며, 고혈압은 앞서 언급했듯 혈관을 손상시킨다.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겨울철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기온이 낮은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나눔의 힘 깨달은 첫 해외봉사

했다. 봉사단이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꽃뭉치이를 걸어주며 우리를 환영해주었고 그때 받았던 은은한 꽃향기는 긴장을 기본 좋은 선행으로 바뀌어놓았다.

K-POP 공연의 열기 또한 대단했다. 공연 후에는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이 진행되었는데 물려드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느라 손끝이 얼얼해지기도 했지만 완성된 풍선을 소중히 쥐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건-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 활동도 이어졌다.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 교육을 통해 보건 지식을 전하고 심폐소생술 시범을 통해 위급 상황 대처법을 공유했다.

일정 중반에는 라오스의 전통 의식인 '바씨(Baci) 의식'을 체험하며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고 이어지는 '우정의 식탁'에서는 현지 분들이 대접해주신 '땀맛국'과 생선 요리를 나누며 진심어

린 유대감을 느꼈다. 공식 활동 외의 일상들도 즐거운 에피소드로 가득했다. 수업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교실에 둘러앉아 구글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문화탐방 역시 특별했다. '블루라군'의 푸른 물결을 보며 외국인들과 어울려 축구를 즐기기도 하고 인근 동굴을 탐사하며 모험을 만끽하기도 했다.

의미 있는 시간 뒤에 찾아온 귀국길에는 물밀 듯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해맑은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고락을 함께하며 끈끈해진 단원들과 헤어진다的事实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社說

행정통합과 민생 회복 촉구 설 민심 새기길

설 명절 연휴기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행정통합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다수는 행정통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실현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여 호응하기 때문으로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행정통합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광주와 전남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일자리와 교통, 행정 서비스 등에서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통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손에 잡히게 보여달라는 것인데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실천해야 할 과제다.

코스피 5000시대라고 하지만 골목상권 침체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민생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역대급 수출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도 지역 골목상권에는 온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인데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

이번 설 민심은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경계감도 작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민심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 미래 이끌 리더 뽑아야

이번 설 명절 밤삼거리엔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특별시가 울랐고 자연스럽게 첫 통합 특별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오른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1985년 분리된 이후 40여년만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져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320만명의 초광역 메가시티 첫 수장을 뽑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원년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행정통합을 뽑는 첫 선거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집을 여러 채 가졌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이 질문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주택이 자산이자 생활 기반이 된 순간부터 각각 정부는 늘 같은 고민을 했다.

미국 역시 대공황 이후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30년대 뉴딜 정책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소득에 누진적 세율을 강화했다. 일부 주에서는 다주택 임대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해 어떤 수장을 뽑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런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많은 참여로 이어져 진짜 지역의 미래를 이끌 진짜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다하더라도 통합 특별시장을 뽑는 첫 선거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본격화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에 추가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본격화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에 추가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도 그 연장선에 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본격화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에 추가 세율을 적용했다.

無等鼓

중과세 유예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editorial board.